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무형과 유형 사이' 기획전

### 28일까지 예능보유자 19인 참여 '문화재 이해' 등 4개 섹션 선보여

“폐백 음식하는데 그저 예쁘게 만들어 이 음식으로 시집 간 사람 잘 살아가, 그렇게 비는 것 뿐이죠.”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 명인에게 음식은 풍경이다. 유년시절 집은 늘상 손님으로 북적였다. 경찰서 지소장을 지낸 아버지 덕에 유독 손님 상을 차리고 내는 일이 많은 집이었다. 음식을 업으로 삼은 집안 어른들 어깨 너머의례음식을 배웠다. 집에서 직접 폐백음식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수도 없이 들어줬다. 대가 없이 베푸는 음식이었지만, 그의 폐백음식으로 딸의 시집살이가 잘 풀렸다는 치사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최영자 명인을 비롯해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삶의 여정이 전시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부처의 얼굴을 채색하는 탕화장, 매일 대패질을 반복하며 집과 가구에 혼을 불어 넣는 대목장과 화류소목장, 붓을 만드는 필장, 풍류 광주의 명맥을 잇는 악기장과 소리 예인들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무형문화재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천착한 기획전시 '생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기획전시 '생 : 무형과 유형 사이'를 찾은 관람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 무형과 유형 사이'가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중국 고대 백과사전인 '회남자'에 남겨진 '무형이 유형을 낳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無形而生有形明矣)'라는 문구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것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힘을 원천으로 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비일상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회에서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19인의 끈고 굳은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제 1부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시행, 이후 술한 개정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두루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럴법한 현상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막 1주갑(60년)을 지나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미래적 가치를

담지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건네보고자 한다.

제 2부 '기술을 잇고'는 광주시 기능분야 무형문화재를 소개한다. 과거의 기술을 현재로 옮겨와 다시 내일로 잇고 있는 이들의 공인적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편폭이 시대적 사명을 띠는 매개자로 확장되어 가는 도정을 부각해 살핀다. 탕화장(송광무), 화류소목장(조기중), 대목장(박영근), 필장(문상호, 안명환), 악기장(이준봉, 이복수), 남도의례음식장(최영자, 이애섭, 민경숙) 보유자

들은 이 시대를 지탱한다.

제 3부 '예술의 연원을 찾아'는 광주 풍류의 맥을 잇고 있는 예능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찾아 나선다. 광주는 서편제 판소리 전승의 구심점이자 근현대 판소리사를 견인한 명창들이 두루 배출된 지역이다. 광주지역의 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의 세계적 위상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여전히 뜨거운 예술 혼으로 소리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판소리(박화순, 이임례, 방성춘, 이순자, 김선이, 최연자), 가야금병창(문명자, 이영애, 황승옥)의 보유자들의 삶과 예술의 깊고 짙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제4부 '전통에다가서다'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궁구했다. 이색적인 분위기의 터널을 지나면서 장인이 건네는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본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눈으로 보이지도,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의 행방을 박물관 전시회에서 찾아보고 그 무진한 가치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지역명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ACC, 22일 '심수봉·윤석철 콜라보' 송년음악회

### 오후7시30분 예술극장1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2일 오후7시30분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3 ACC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9회째를 맞은 'ACC 송년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와 구성으로 관객과 만난다.

한국음악의 전설이자 세대를 초월하는 국보급 음색을 지닌 가수 심수봉과 재즈와 힙합, 팝, 일렉트로닉, 발라드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인 윤석철의 콜라보 무대를 초연으로 선보인다.

'백만 송이 장미',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여자는 향구' 등 한국 음악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곡들을 재즈적 감성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세대 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국내 1위 클래식 유튜브 채널 '도모'에서 창단해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TMO(Towmoo Philharmonic Orchestra) 오케스트라가 겨울 감성을 가득 담은 영화음악을 50인조 선율에 담아낸다. TMO 오케스트라는 정통 클래식 프로

그램과 영화음악을 넘나드는 곡을 선보이며 서울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아트센터인천 등 전국 주요 공연장에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 '시네마 천국', '러브레터', '미션', '전장의 크리스마스' 등 겨울에 어울리는 대표 영화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 ACC에서 첫 선보일 예정이다.

'시네마 천국' OST에서 발달장애를 음악으로 치유해 실력 있는 음악가로 성장한 트럼페터 이한결이 협연자로 참여, 트럼펫 선율로 겨울 감성을 더한다.

공연 마지막은 조지 거슈윈이 지난 1924년 작곡한 심포니 재즈의 대표작 '랩소디인블루'가 장식한다.

'랩소디인블루'는 재즈의 작곡기법과 랩소디풍의 양식이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는 작품으로 최초의 심포니재즈이자 드라마, 광고 등에서 연주되며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예매는 오는 8일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광주고려인마을, 내달 고려인화가 문빅토르 미술관 개관

### 고려인마을 주민 1800만원 모금



광주고려인마을은 고려인화가 문빅토르(사진)미술관이 내달 개관된다고 5일 밝혔다.

문빅토르 미술관은 연면적 120㎡로 마을소유 건물 공간을 활용해 전시실과 화실, 손님방 등으로 구성된다.

또 교육실도 마련해 문 화백의 화법을 후세대에 전승할 예정이다. 고려인마을은 개관일로 정한 1월이 다가옴에 따라 문 화백과 지역예술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관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명칭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 화백은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첫 도착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1951년 출생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살던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했다.

1985년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



카자흐스탄 대표 고려인 화가 문빅토르씨가 광주에 기증한 자신의 대표작들. 흥범도장군 초상화(왼쪽)·1937년 강제이주를 그린 '환영식'. **문빅토르씨 제공**

베키스탄, 라트비아, 한국, 일본 등에서 개인전을, 2017년 카자흐스탄 국립미술관 초대전을 가졌다. 2017년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아픈 기억 꿈꾸는 희망'이라는 초대전을 가졌다. 대표작은 '1937 고려인 강제이주열차'와 '우수리스크 나의 할아버지', 인물화 '흥범도장군' 등이다.

고려인마을은 문 화백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

술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해 11월 문 화백을 광주로 초청해 치료비와 체재비 일체를 지원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문 화백이 광주에 정착해 자신의 화법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미술관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고려인마을이 미술관 건립 모금운동에 나서 1800만원을 모은 바 있다. **정성현 기자**

## 스토리디자인협회 초대전 '이야기에 가치를 더하다'

### 8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광주대학교는 지난 1일부터 교내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5번째 초대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 주제는 '이야기에 가치를 더하다'이다. 시각디자인, 캐릭터, 패키지, 포스터, 패션, 뷰티미용, 기업 아이덴티티,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가시적 디자인 데이터를 이

야기로 엮었다.

88인의 회원은 각자의 방법으로 기획, 창작, 마케팅,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스토리로 엮어 작품에 가치를 부여했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 관장은 "정보와 디자인이 넘치는 이 시대에 소비자는 스토리가 담긴 감성 디자인 제품을 원한다"며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회원들은 줄곧 디자인에 이야기로 가치와 감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빛고을예술단, 9~10일 '양림예술축제' 송년공연

### 펭귄마을 야외광장

지역 문화소외계층에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빛고을예술단이 송년 공연으로 9~10일 오후2시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양림예술축제' (사랑의 콘서트)를 펼친다.

박광신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는 9일 제749번째 '양림 예술축제'는 초대가수 진이랑, 재즈가수장소영, 7080통기타 가수 최영준, 김상기 예술총감독 희극 폼바 등이 진행된다.

10일 열리는 제750번째 '양림 예술축제' 역시 박광신 아나운서 사회로 초대가수 진이랑이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하며 재즈가수장소영, 7080통기타 가수 최영준, 김상기 예술총감독 희극 폼바 등이 진행된다.

2000년 1월 5명의 단원으로 창립된 빛고을예술단(옛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2005년 8월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여왔다.

문체부 지원사업인 전국 사회복지시설 순회공연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공연 등 지난 18년 동안 748회의 무대를 마련했다. **도선인 기자**

